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55 회색과 언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

人 실버 블릭(silver blick)은 눈을 흘기는 것이며, 탐욕스러운 눈길, 남을 몰래 훑쳐보는 눈길에서 유래되었다.

실버 사이드(silver side)는 영국에서 소의 허벅지 뒷부분을 의미한다.

실버 서비스(silver service)는 레스토랑의 손님 테이블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뜻한다.

실버 스트릭(silver streak)은 영국 해협을 말한다.

실버 코드(silver code)는 탯줄을 의미하며, 전도서 12장 6절에는 은실이 생명의 상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실버 테일(silver tail)은 호주의 영어로 상류계급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사교계의 명사 또는 돈 많은 실력자를 의미한다.

실버 통드(silver tongued)는 말이 유창하거나 언변이 좋음을 뜻한다.

실버(silver, silver gray)는 1481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색명이며, 실버 그레이는 1607년에 생긴 말이다. 또한 뉴 실버(new silver)는 올드 실버

(old silver)라고 부르는 색보다도 조금 파란색을 띠고 있다. 따라서 뉴 실버를 쿨 그레이(cool gray)와 올드 실버를 웜 그레이(warm gray)라고도 한다. 그중에서 비교적 밝은 그레이가 주로 사용된다.

○ 은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것은 행복하게 태어나거나 귀한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의미이다

○ 은으로 만든다(versilbern)는 것은 독일어로 물건을 팔아 돈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 회색 생쥐(graue Maus)는 19세기 프랑스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자를 말하며, 성적 매력 없는 여자를 가리킨다.

○ 회색시장은 장물을 거래하는 검은 암시장처럼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한 상거래와 가격동결을 우회하는 시장이다.

○ 회색 시절은 어둡고 우울한 시절과 불행한 시절을 의미한다.

○ 회색 옷의 여자는 19세기 프랑스에서 값싼 매춘부를 말한다.

○ 회색 왕은 은밀한 권력과 후광에 둘

러사인 인물이며, 공식적으로 책임과 권한도 없지만,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결정한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회색 왕은 프랑스의 백작 프랑수아 르 클레르 디 트랑블레(Francois le Clerc du Tremblay, 1577년~1638년)이다.

○ 회색 표범은 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일의 사회단체이다. 그들의 상징적인 동물인 표범은 지질 줄 모르는 젊음을 연상시킨다.

○ ‘회색 머리가 자라도록 하지 말라’는 서양의 속담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 회색 문헌은 협회지와 학위논문이다. 이 문헌은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도서관의 일반목록이 아닌 회색 카탈로그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 회색의 작은 남자는 자연에 등장하는 요정과 도깨비의 각종 잡신을 말한다.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며, 그림자제국이다. 다시 말해서, 회색 나라의 형상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독자투고

112신고시 시민보호 위한 조치 빨라진다

2024년 7월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들이 범죄와 긴급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급박한 112 신고처리 현장에서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효과를 위해 긴급조치권이 마련되었다. 위험 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진압을 위한 긴급조치 발동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긴급조치를 거부·방해 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현장 경찰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 및 상호 협업 강화 규정 명시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하였다. 공동대응 협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진압을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강화되었다.

향후 기관 간 업무 관계 개선·발전이 기대되며, 능동적인 치안활동과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짓·장난 신고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사이의 처벌 요건, 형량의 차이를 보완하여 법적 완결성을 구축하였다.

112신고처리법 상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력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비상벨 역할에 충실하며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였다.

현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능동적인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대응과 국민 안전 수호의 선봉장 역할이 기대되는 바이다. 배지환 <여수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7월 광주, 미디어아트 보러 가세요!



'스완지 이적' 광주FC 임지성 팬들과 마지막 인사

광주 청년 작가들과 서울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모여 '해테로포니, 10년의 연주'라는 주제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광주시의 10년간의 미디어아트 역사와 현재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시장에는 홀로그램 작품부터 VR 체험, 300개의 빛나는 라이팅북, 무등산을 주제로 한 영상 사운드작품 등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전시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을 확정지은 '광주 로컬보이' 임지성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광주FC는 지난 5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임지성의 환송회를 진행했다. 환송회는 임지성의 인사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꽃다발 및 롤링페이퍼 전달식, 팬들과의 질의응답, 애장품 경품 추첨 및 팬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임지성은 등번호 7번을 물려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는 팬의 질문에 "금호고 후배인 안혁주 선수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답했다.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 초대 챔피언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가능할까

'페이커(@faker)' 이상혁이 이끄는 T1이 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e스포츠 월드컵(EWC)에서 중국 TOP e스포츠(3:1)를 꺾고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EWC는 사우디아라비아가 e스포츠 패권 장악을 꿈꾸며 막대한 상금을 준비한 대회다. 주최 측은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만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참가팀은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 나섰던 8개 구단으로, T1은 이번 대회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우승, 상금 4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거머쥐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참사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으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실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조회사가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제조회사들은 가격 인상 등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차량 구매 시 설치 옵션을 추가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